



2024년 11월 17일(제1220호) **연중 제33주일(세계 기년회 이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기년의 의미”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회년을 폐막하며 이날을 제정하셨는데요. 항상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전통에서 ‘가난’이 무엇인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가난은 ‘궁핍한 자, 가련한 자, 억눌린 자, 핍박 받는 자’ 등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가난은 히브리어로 ‘에브온’이라는 단어를 통한 ‘빌어먹는 신세, 거지 신세’ 등을 가리킵니다. 성경 안에서조차 가난은 대물림되는 사회적 불의이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이러한 이들이 하느님의 관심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보다 비참하고 서글픈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난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이, 집이 없고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 등으로 나타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발적 가난’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 이를 볼 수 있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훌륭하게 지켜온 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겐세마니에서 기도하신 기도,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는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는 ‘행동적 가난’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적 의지의 포기 또한 ‘영적인 가난’으로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곧 가난의 핵심은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느님의 뜻만을 추구하려는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귀찮은 일마저도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각오가 가난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많은 반성이 듭니다. 군종사제로 살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돌이켜봤을 때, 저는 많은 순간 가난을 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일, 무의미하다고 느끼며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회피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가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기실 임무들을 그분의 도구로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해보고 싶습니다.



윤대성(세례자요한) 신부
장릉오리성(해병대 제2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다니 12,1-3
- 회답송**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 2 독 시** 히브 10,11-14.18
-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 복 음** 마르 13,24-32
- 영성제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이홉 번째 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죽림에서, 1860년 9월 3일

리브와 신부님과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고 경애하올 신부님들

먼저 두 분 신부님들께 공동 서한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이 작은 서한을 두 분께뿐 아니라 모든 경애하올 신부님들께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경신)박해(庚申迫害)의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서 교우들과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과도 소식이 끊어져, 그분들이 아직 살아 계신지 아닌지조차도 모릅니다. 이 서한이 중국에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도 의심됩니다.

그 박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으며, 끝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신자들은 많지 않고 감금된 여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포졸들이 사방으로 파견되어 선교사 신부님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에서 17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었는데, 남자가 14명이고 여자가 3명이라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교우들도 특히 이 도(道)의 신자들은 거의 모두 다 자기 마을에서 쫓겨났고, 집과 전답과 모든 생활 필수품을 전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몸 붙여 지낼 곳도 없이 극도로 처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조용히 조용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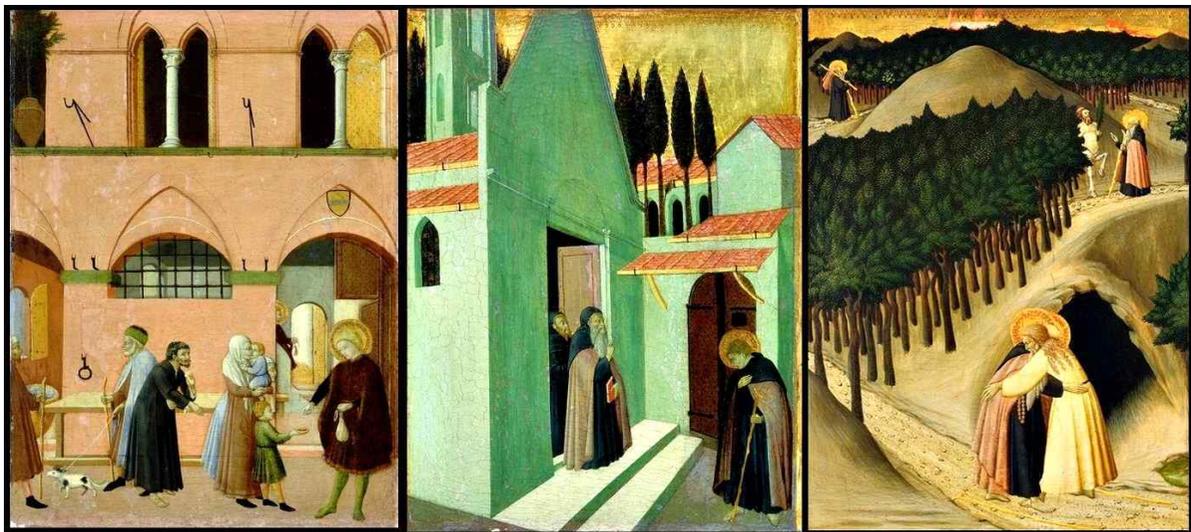
오란할 것 없어.	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겁먹을 것도 없어.	이 자리를 지키는 거야.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오세르빈씨의 대기



Master of the Osservanza / 안토니오 성인의 일생 연작 중 일부(Triptych of St. Anthony)
 1430년경 제작 / 포플러 나무 위 템페라 및 금박화(Tempera on poplar panel), 48x35cm(each panel)
 네셔널 갤러리, 워싱턴 D.C.(The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정확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화가는(일부는 사세타라는 화가로 추정하기도 한다) 안토니오 성인의 생애를 다룬 연작을 그렸는데, 본 주보에 실린 작품 중 맨 왼쪽의 작품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안토니오 성인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이 걸친 옷과 돈, 속세에서의 모든 부유함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다. 이탈리아 투스카니 특유의 흙색이 섞인 분홍색으로 칠해진 건물 앞에서, 막대를 지닌 맹인들이 서로를 지나쳐 가고(한 명은 맨발이다) 아이를 안은 여인과 노인이 우아하면서도 매우 값비싸 보이는 털옷을 입은 안토니오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열린 문 안으로 성인을 기다리는 수도사가 보인다.

중앙 패널에서는 다소 나이를 먹은 듯이 보이는 안토니오 성인이 수도회를 나와 세상으로 떠나는 장면이 보이며, 마지막 작품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마찬가지로 흰 수염이 덩수룩한 안토니오 성인이 세상에서의 여행 끝에 바오로 성인과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이들 뒤에 보이는 검은 동굴이 아마도 성인들이 들어가 쉬는 곳이 될 것 같다. 그림 중앙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의 괴물 켄타우로스과 성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성인에 대한 세속적인 유혹 등을 상징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화가는 성인의 모습을 그리면서 보기 드문, 매우 뛰어난 우아함을 보는 이에게 선사한다.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여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며, 인간의 존엄과 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의 '우아함'을 되새겨 본다.

김은혜(벨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연중 제33주일: 백미 김정준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 11월 17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국장회의
 때·곳: 11월 1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2024년 제2차 정기 이사회
 때·곳: 11월 20일(수) 11:00, CBCK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